

벤츠 'G바겐 첫 전기차' 中서 공개...네 바퀴마다 모터장착

제자리 회전·오프로드 지원...최대 473km 주행에 432kW 출력 35도 각도 경사면 안정적 주행...올해 하반기 국내 출시 예정

메르세데스-벤츠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중국에서 프리미엄 모델 G클래스의 전동화 모델을 처음 공개했다.

G클래스는 'G바겐'으로 불리는 오프로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1979년에 등장했다. 순수 전기차 모델 출시의 이번이 처음이다.

벤츠는 지난 24일 중국 베이징 시내 예술단지 '아트 디스트릭트 798'에서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열고 G클래스 전기차인 '디 올 뉴 메르세데스-벤츠 G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이하 G580)를 공개했다.

G580은 4개의 바퀴 가까이 각각 개별 제어 전기모터를 장착했다. 4개 모터가 내는 최대출력은 432kW(킬로와트), 최대토크는 1164Nm에 달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은 4.7초다.

G580은 4개의 모터를 통해 단단하지 않거나 포장되지 않은 노면에서 차량을 제자리에서 회전시키는 'G-턴', 오프로드 주행 시 회전 반경을 크게 줄여주는 'G-스티어링' 기능을 구현했다.

또 운전자가 지형 대처에 집중하는 동안 시속 2

~8km의 고정 속도로 주행하며 최적의 추진력을 유지해 주는 '3단 지능형 오프로드 크롤링 크루즈 컨트롤'도 탑재했다.

이런 기능을 통해 G580은 최대 35도 각도 경사면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

G580은 116kWh(킬로와트시) 용량의 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유럽(WLTP) 기준 최대 주행거리는 473km다.

직류(DC) 급속 충전 시스템을 탑재해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약 32분이 걸린다.

G580의 외관은 기존의 '패밀리 룩'을 이으면서도 블랙 패널 라디에이터 그릴과 살짝 높아진 그릴 등의 디자인 요소로 '전기차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벤츠는 설명했다.

여기에 '마누팩투어'를 적용하면 더욱 개별 맞춤화된 G-클래스를 완성할 수 있다. 페인트 컬러와 스페어 휠 링, 시트 그래픽 요소, 스티어링 휠, 계기판 장식 등 백만 가지 이상의 색상 및 소재 조합이 가능하다. 마누팩투어 카탈로니아 베이지-블랙(MANUFATUR Catalan beige-black)의 투톤 가죽 인테리어가 처음으로 출시되며, '마누팩투어



벤츠의 'G바겐 첫 전기차' G580 내외관. <벤츠코리아 제공>



국내에는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G클래스 국내 판매량은 지난 2019년 374대에서 2021년 2013대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169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마르쿠스 슈페르 벤츠그룹 이사회 멤버 및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전동화된 파워트레인, 최첨단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향상된 편안함과 오프로드 기능을 갖춰 '질렌데바겐' (길이 없는 지역을 다니는 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지속적인 성공

신화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벤츠는 G580에 앞서 기존 내연기관 모델인 '더 뉴 G클래스'의 부분변경 모델 G500, G450d와 고성능 모델인 메르세데스-AMG G63 등 3종을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출력을 높이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바꾸지 않으면서 라디에이터 그릴과 전-후면 범퍼, 후방 카메라 배치 등의 디테일을 개선한 모델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 오토랜드 광주, '기아위드 Green School 프로젝트' 후원

초등학교·복지시설 환경교육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장 문재웅)는 29일 '기아위드 지속가능 광주만들기 Green School 프로젝트' 후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기아위드사업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2016년부터 지역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추진해 온 사업으로 매년 주제를 정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는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기후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지구살리기', '기후위기 대응 그린공동체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지속가능한 광주만들기 Green School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아위드 Green School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관·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 초등학교 10곳과 사회복지시설을 모집해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및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그린 미션 챌린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여자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올해 기아위드에서는 지역 대학생과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기아위드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서



포터즈로 선발된 이들은 역량강화를 위한 별도의 환경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교육 후에는 기아위드 지속가능한 광주만들기 Green School 프로젝트 활동지원과 홍보를 맡을 예정이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프로젝트를 위한 후원금 전달을 위해 이날 오후 2시 기아 AutoLand광주의전관에서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기아위드 지속가능한 광주만들기 Green School 프로젝트가 지역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 EV9, '2024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싼타페-GV80 쿠페 등 3개 본상

현대차-기아-제네시스는 '2024 레드닷 어워드'에서 최우수상 1개를 포함해 총 4개의 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레드닷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다. 매년 제품,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우수 디자인을 선정한다.

이중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는 혁신성, 기능성 등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최우수상과 본상을 결정한다.

기아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는 제품 디자인 부문 중 '수송 디자인'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사진>

앞서 EV9는 지난 3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금상을 받아, 이번 수상으로 세계 3대 디자인 상 가운데 2개를 휩쓸는 기록을 세웠다.

EV9는 우아한 볼륨감과 SUV의 웅장한 이미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선보인 5세대 싼타페로 본상을 받았다. 싼타페는 강인한 외관과 섬세하고 넓은 실내 공간을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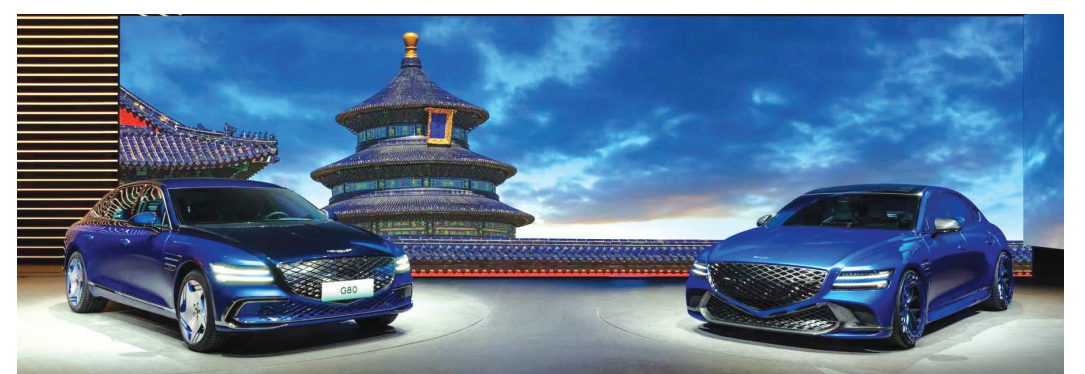
제네시스 GV80 쿠페도 제품 디자인 본상을 받



았다. 제네시스 최초의 쿠페 모델인 GV80은 고급스러움과 편의성은 유지하면서 쿠페 전용 디자인을 더한 점이 특징이다.

현대차의 멀티 랜턴은 '야외 및 캠핑 장비' 분야에서 본상을 받았다. 멀티 랜턴은 한국 고유의 호롱불을 모티브로 디자인됐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고유의 디자인 철학을 반영하기 위한 디자이너들의 고민과 열정이 결어낸 결과"로 "앞으로도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 고객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만족시키고 의미 있는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왼쪽)과 G80 전동화 마그마 콘셉트. <현대차 제공>

제네시스,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 첫 공개

중국 베이징 '오토 차이나' 서

제네시스는 25일 중국 베이징 국제전람센터 순이관에서 열린 '2024 오토 차이나 (베이징 모터쇼)'에서 럭셔리 대형 세단 G80의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또 럭셔리에 고성능을 더한 '제네시스 마그마'를 소개하고, 이를 적용한 'G80 전동화 마그마 콘셉트'를 선보였다.

제네시스는 지난 2021년 4월 상하이 모터쇼에서 브랜드 첫 전동화 세단인 G80 전동화 모델을 공개한 바 있다. 3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부분변경 모델은 상품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이번 모델은 브랜드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반영해 범퍼, 헤드램프 등 외관에 더욱 정교하고 화려한 디테일을 더했다.

측면부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19인치 전용 휠을 적용했다. 후면부는 제네시스 크레스트 그릴의 디자인에서 착안한 V형상의 크롬 트림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구현했다.

외장 색상으로 고사성어 '청출어람'에서 착안한 '비전 블루'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는 변화와 혁신

을 선도하며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중국 고객들을 겨냥한 중국 시장 전용 색상이라고 제네시스는 소개했다.

나아가 제네시스는 '마그마 프로그램'을 적용해 모든 라인업에 마그마라는 최상위 트림을 추가한 콘셉트 모델을 공개했다.

G80 전동화 마그마 콘셉트, 제네시스 X 그란 베를리나 콘셉트, GV60 마그마 콘셉트 등이다.

특히 G80 전동화 마그마 콘셉트는 이번에 새로 공개된 것이다.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마그마 콘셉트를 처음 공개하면서 선보인 GV60 마그마 콘셉트와 더불어 제네시스 마그마 출시 이후 양산될 고성능 콘셉트 중 하나다.

G80 전동화 마그마 콘셉트에는 제네시스 마그마의 신규 색상 '아크미 블루'가 적용됐다. 가장 뜨거운 불이 파란색으로 타는 현상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중국 고객들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담았다고 제네시스는 설명했다. 제네시스가 이번 베이징 모터쇼에 마련한 803㎡의 전시 공간에는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을 포함해 총 8대의 차량이 전시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호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데이' 행사에 참가한 금호타이어 유럽지역 주요 딜러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 유럽시장 공략 강화...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데이' 행사

유럽 딜러사 대상 제품 성능 체험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는 최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금호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유럽 딜러사를 대상으로 이탈리아 밀라노 바이라노 서킷(Vairano Circuit)에서 금호타이어 제품 성능을 체험할 수는 행사를 마련했다.

금호타이어는 또 이탈리아의 명문축구 구단 'AC 밀란'의 홈구장 산 시로 스타디움에서 AC밀

란과 인터밀란의 경기를 관람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스포셜 스폰서를 위한 빅매치 데이 이벤트로 마련돼,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했다.

최근 5년간 유럽시장에서 연평균 20% 이상의 꾸준한 매출성장을 이루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특히 지난해 전년 대비 약 44%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매출 성장에는 유럽 시장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R&D) 전략이 유효했다. 최근 금호타이어는 세계적 권위를 지닌 독일 자동차 전문지들이 실시한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

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명했다.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은 "금호타이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인 4조5600억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통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금호타이어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운전자에게 최상의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